

"연꽃에서 희망을 얻다"...오토니엘 개인전

2 February, 2016 | 김정선 기자

page 1 of 2

프랑스 조각가 장 미셸 오토니엘(52)의 개인전이 2일부터 서울 종로 삼청로에 있는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5년 만에 한국에서 전시를 여는 오토니엘은 이번에 유리조각, 설치작품, 회화 등 신작 10점을 선보인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보라, 황금, 검정, 파랑 등의 색채와 알알이 연결된 구슬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번에 작가가 탐구한 주제는 '꽃'이다.



작가 장-미셸 오토니엘, Photo: Keith Park,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그는 "나의 작업에서 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꽃의 숨은 의미나 상징은 매력적인 것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고 말한다.

전시작 중에서도 대표작은 '검은 연꽃'이다.

이날 전시장에서 만난 오토니엘은 연꽃의 의미에 대해 "지난번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연꽃을 자주 봤던 때문인지 이 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느꼈다"며 "연꽃은 내게 영성을 의미하는데, 그 형태를 추상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작가는 영성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연꽃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탈출구 같은 것 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은 연꽃'에 "순수함과 상충되는 검은 색을 사용했다"며 흑백 또는 선악이 함께 있는 중의성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불교를 잘 아느냐는 질문에는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면 종교에서 파생된 조각들을 접한다"며 "친구 중에 불교 신자가 많다"고 답했다.

그는 기존 작품보다는 신작이 "좀 더 순수하고 과격한 측면이 있다"고 평한 뒤 "회화 작품은 이번에 처음 발표한다"고 말했다.



장 미셸 오토니엘 '검은 연꽃' 설치 전경, Photo: Keith Park,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개인전에선 검은 연꽃 연작과 황금, 핑크, 자주 빛 작품이 다양한 형태로 함께 소개된다.

오토니엘은 1980년대 후반부터 사진,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다루다가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리를 이용해 작업하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베르사유궁전 정원에 '아름다운 춤'이라는 작품을 설치했다.

갤러리 측은 "오토니엘은 최근 프랑스 앙굴렘에 위치한 성당 내부에 오래된 유물들을 보존하는 공간 전체를 장식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이를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시는 3월27일까지다.